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 워크숍 지상중계

“내가 옳으면 너도 옳다는 성찰에서 시작”

총무원장 자승스님 “화쟁의 불교·사회적 의미 정립하는 계기되길”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가 지난 17일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사회적으로 생소한 화쟁(和靜)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를 실천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화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종단 전체가 화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통일적 관점을 중요하다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당부에 따라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 “내가 옳으면 너도 옳다. 다름”을 존중하라.”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지난 17일 ‘화쟁사상과 사회갈등 해소’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화쟁위원회의 활동은 일찍이 우리나라 종교의 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종교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우리 종단이 앞장서 화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워크숍을 통해 우리 종단, 나아가 불교계가 화쟁사상에 대한 불교적, 사회적 의미와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담론과 해법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인사말에서 “그동안의 활동이 화쟁적 시각에 충실했는지, 화쟁적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되돌아보도록 앞으로 더욱 더 명과실이 상부한 화쟁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와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교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화쟁의 의미와 실천방향에 대해 조명했다.

조성택 교수는 화쟁을 ‘원융무애의 실천적 원리’라고 정의했다. ‘원융무애(圓融無碍)’란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으로 갈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상세계란 장차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적인 변화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은 이상과 너무도 다르다. “각각의 개체가

각자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분절적이며 고립적인 수많은 개체의 집합체로서 존재할 뿐이다.”

7세기 신라의 고승 원효스님은 이러한 세계의 근원적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 ‘화쟁’이라는 “해석학적 전략”을 발명했다. “각 개별 경전들의 다양한 주장들은 불설(佛說)의 전개(展開)로써 각기

장을 긍정해야 기동과 같다고 한 주장도 긍정될 수 있다. 부분적 진리성은 일부분의 긍정이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긍정되어야만 진리성을 확보한다.

반면 “여러 개별적 주장들은 전체가 아닌 부분적 진리일 뿐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전체가 동시에 부정되어야 한다.” 개시개비(啓

고 밝혔다.

이도흠 교수 역시 화쟁을 갈등해결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갈등은 너와 나를 이분법으로 나누고 동일성에 집착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항대립적 사유에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폭력적 계층질서가 존재한다.” 불일불이(不一不二)를 지향하는 원효스님의 화쟁은 “차이를 통하여 공존을 모색하자는 사유체계다.” 예컨대 “씨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면 씨는 썩어 없어지지만 씨가 자신을 공하고 하여 자신을 희에 던지면 그것은 썩고 열매로 변한다. 공(空)이 생멸 변화(生滅變化)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화쟁은 우열이 아니라 차이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투쟁과 모순이 아니라 자신을 소멸시켜 타자를 이루게 하는 상생의 사유체계”라고 말했다. 더불어 화쟁위원회의 역할로 만남과 대화, 공정한 중재와 변증법적 종합, 당위적인 화쟁이 아닌 구조적 제도적 원인 분석과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의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을 제언했다.

“나와 타자 사이의 진정한 차이와 내안의 타자를 찾아내고서 자신의 동일성을 버리고 타자 안에서 부처를 발견하고서 나 또한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내가 아무리 옳다고 고집해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틀린 생각이라는 것. 귀를 열고 말을 아끼는 진심의 소통. 그것이 화쟁이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조성택 고려대 교수

“동시적 긍정과 부정을 통해

개별 독특성과 한계 함께 제시해 다(多)의 공존 가능성 열어놔야”

부분적으로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여러 학파의 이러한 다름(異靜)은 결국 불설(佛說)로 귀일(歸一)된다는 점에서 본원적으로 동일하다.” 다르되(多) 같은(一) 것이다.

원효스님은 유명한 코끼리의 비유를 들어 경전의 주석이나 교리적 쟁론의 화해를 넘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누군가는 벽(배)과 같다 하고 누군가는 기둥(다리)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각자의 처지에서 얻은 지식으로 단편적으로는 옳다. 스님은 현실의 다(多), 여러 개별적 주장들의 부분적 진리성을 인정한다. 단 배와 같다고 한 주

이도흠 한양대 교수

“공정한 중재와 제도 분석

당사자 간 합의로 투명한 의사결정 이끌어 내는 게 화쟁위 역할”

是皆非), 모두 옳거나 모두 틀린 셈이다. 그리고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은 판단 주체인 나 역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장님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면 나도 틀렸다”는 성찰에서 진정한 화쟁이 성립된다.

조성택 교수는 “동시적 긍정과 부정을 통해 각 개별의 독특성과 한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현실적 다(多)의 공존과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며 “바로 이 점이 원효의 화쟁론이 오늘날 다문화화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요청되고 있는 이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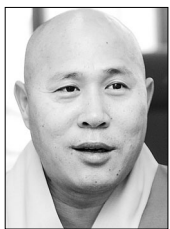


‘아시아 소년, 한국불교를 만나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 청소년 초청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한국문화 및 한국불교에 대한 아시아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청소년과 지도자 등 20명이 참가했다. 특히 한스문화사회복지재단, 더프라이스,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등 불교계 국제구호 NGO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7일 ‘아시아 청소년 초청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단주를 선물하는 모습. 김형주 기자

장적스님, 총무원장 종책특보로 임명돼

미디어 홍보담당

서울 원통사 주지 장적스님(사진)이 미디어 홍보담당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장적스님을 종책특보로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언론에 관심이 많고 총무원 기획실장을 거치면서 누구보다 미디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종책특보로) 보셨다”



면서 “미디어가 종단과 포교의 미치는 역할을 연구해 불교계 종합미디어를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적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불교계 기자들이 종단과 포교를 위해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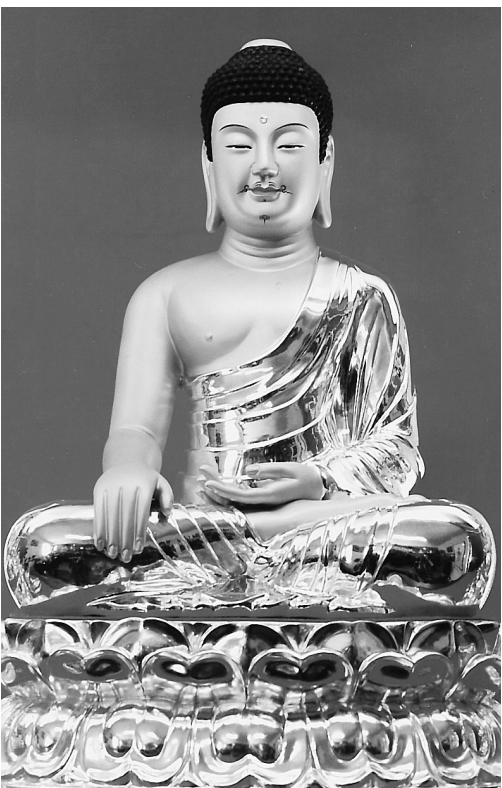
본말사주지인사규정 개정된다

총무원, 8월10일 입법 예고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말사 주지 스님들이 임기 내에 종단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명

시한 것이다. 이는 주지 스님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원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상설 연수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입법예고 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이때까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장영섭 기자

법당 특수음향 · 영상 감시카메라, 방범설비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범한산업은 최신기술과 철저한 사후봉사를 바탕으로 수십년간 오직 신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전국 대소 명찰과 성지에 음향, 영상 설비와 방범 보안 설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 시공후 5년간 무상으로 보수하여 드립니다.
- 전국 어디에서든지 연락 주시면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 설계하여 드립니다.
- 완벽한 방범설비로 귀중한 성보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화재 예방등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 최신 영상설비로 영상포교에 활용하십시오.

- 법당 특수 음향설비
- 감시 카메라 방범설비
- 법당 영상설비
- 위성 방송 수신설비

홈페이지 : www.bumhani.com

範韓産業 Tel : (02)737-1201 Fax : (02)739-1160 H · P : 011-9739-1159

헤저 큰 스님께서 직접 강의하시는

“제31기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불교대학은 핵심불교교리와 의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는 불교 입문 과정입니다.

- ⇒ 일시 : 8월 30일(월요일) 오전 10:30~오후 2:00 (14주)
- ⇒ 회비 : 10만원(교재비 포함, 점심제공, 조계종 신도증 발급)

“제18기 기초참선반 수강생 모집”

기초참선과정은 참선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참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입니다.

- ⇒ 일시 : 8월 30일(월요일) 오후 8시~10시 (14주)
- ⇒ 회비 : 2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02)445-8484